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1.02.19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NATO, 아프가니스탄 내 나토군 지속 주둔 입장 표명

- 2.15 「엔스 스톨텐베르그」 NATO 사무총장은 “탈레반이 폭력행위를 줄이고, 테러리스트 그룹과 협력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”고 강조하며, 아프가니스탄 내 나토군을 철수시키지 않겠다고 언급

미주

○ 美 재무장관, '암호화폐 리스크' 경고

- 2.10 「재닛 엘런」 美 재무장관은 “암호화폐와 가상자산이 돈세탁·테러자금 조달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”고 지적하며 정책과 기술혁신을 통해 관련 리스크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

○ 美 검찰, '의사당 폭동사태' 주도 인물로 전직 FBI요원 수사

- 2.12 美 검찰은 해군 정보장교 출신의 전 FBI요원 「에드워드 칼드웰」을 의사당 폭동사태 핵심인물로 보고, 反정부 민병대 단체 '오스 키퍼스'·'스리 퍼센터스' 등과 함께 폭력을 유도한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발표
- * 1.6 의사당 난입 사태로 폭동 참가자 4명과 경비경찰 1명 사망

○ 美, 쿠바 '관타나모 수용소' 폐쇄 검토

- 2.13 로이터통신은 美 정부가 「바이든」 대통령 임기 중 쿠바 관타나모 해군기지 수용소* 폐쇄 검토에 착수했으며, 수용자 이송 및 안보 영향 평가 등을 고려할 경우 폐쇄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도
- * 「조지 W 부시」 전 대통령이 9.11 테러 용의자 수용을 위해 설치, 현재는 40여명이 감금중이며, 고문·가혹행위 등으로 인권침해 논란 지속

아 · 태평양

- 비행금지구역內 미승인 드론 출현 증가로 국가안보 위협
 - 2.10 「송석준」 의원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도권과 휴전선 부근의 미승인 드론비행 적발('18년 15건, '19년 28건, '20년 43건)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, 이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을 주문
 - * '19~20년 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드론 출현 사유는 △취미·레저 25건(39%), 드론 테스트 13건(20.3%), 방송국 프로그램 촬영 8건(12.5%), 홍보영상 촬영 6건(9.4%) 등
- 뉴질랜드, 이중 국적 ISIS 테러 용의자 책임 놓고 호주와 대립
 - 2.15 뉴질랜드 총리는 터키에서 테러 용의자로 긴급체포된 濠·뉴질랜드 이중 국적자인 ISIS 가담 여성(26세)에 대해 호주 정부가 시민권을 박탈하여 신병 책임 부담을 자국에 떠넘기고 있다고 불만 토로

중 동

- 탈레반, NATO에 “아프간 주둔 외국군 철수” 압박
 - 2.14 AP통신은 탈레반이 NATO 국방장관 회의를 겨냥하여 “아프간內 외국군이 5월까지 철수하지 않을 경우 지하드(이슬람 성전)를 계속 하겠다”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

아프리카

- UN 평화유지군, 무장단체 공격으로 20여명 부상
 - 2.11 UN대표부 대변인은 말리 두엔차에 주둔중인 UN 평화유지군이 알카에다·ISIS와 연계된 이슬람 무장단체들의 공격을 받아 20여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발표
 - * UN은 '13년부터 14,000여명의 평화유지군을 말리에 파견하여 임무수행 中

독일 헤센州, 극우주의자 총기 난사 사건

- '20.2.19. 22시경 독일 헤센州 하나우에서 新나치주의자 남성 「토비아스 라텐」(43세)이 술집 두 곳에 총기를 난사하여 9명 사망·5명 부상
 - 테러범은 극우성향의 자백 편지("독일이 추방하지 못하고 있는 특정 민족들을 제거한다")를 남겼으며, 자신의 웹 사이트에도 비정상적인 생각과 인종차별주의적 사고방식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
 - 독일 수사 당국은 테러범이 범죄 이전까지는 감시망에 포함된 인물은 아니었으며, 과거에는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고 언급
- 「메르켈」 총리는 테러 희생자를 애도하고 "독일에서 극우주의와 反유대주의·인종차별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높아졌다"며 이슬람 사원·유대교 회당 등 종교시설과 기차역·공항 등에 경찰력 추가 배치를 지시하는 등 경계를 강화

< 新나치주의(Neo-nazism) >

- (개 요) 제2차 세계대전, 나치독일 이후에 민족사회주의적인 사상을 재수용하는 사상이나 움직임
- (설 립) 1950년대부터 서독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, 舊나치스 당원이 많이 참여한 독일국가민주당(NPDP, 1964년 결성)이 그 중심적인 존재로 독일민족의 우위와 국민공동체의 건설, 戰後체제의 비판, 반공·反美정책 및 反유대주의 등을 표방
- (테러 대상) 외국인 노동자 및 난민 대상 살인·방화 등 자행
- (주요 테러) △'92.11.23 뮐른 방화로 터키 여성 3명 사망 △'93.5.29 졸링겐 방화로 터키 여성 5명 사망, △'00~'11년까지 新나치주의자 3명이 독일 여성 경찰관과 터키인 포함 11명 연쇄살인

